

제주 동갑내기 골퍼 동반우승 '재역사'

임성재, 3년 7개월 만에 코리아투어 역전우승 임진희,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정상

제주 출신 동갑내기 임씨 남매가 KPGA와 KLPGA 무대에서 동반우승을 차지하는 역사를 썼다.

3년 7개월 만에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대회에 출전한 임성재가 KPGA 코리아투어 우리금융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에서, 임진희가 한국어자프로골프(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8억원)에서 나란히 우승을 차지했다.

임성재는 14일 경기도 여주시 페럼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2개를 범했으나 이글 1개와 버디 4개를 잡아내며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0언더파 280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호주동포 이준석을 1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 10월 코리아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이어 KPGA 코리아투어 통산 두 번째 우승이다.

3년 7개월 만에 복귀하면서 동시에 타이틀도 거머쥐는 저력을 보였다. 당시 임성재는 3라운드까지 선

두에 7타 뒤진 공동 5위였으나 마지막 날 뒤집기에 성공하며 역전우승을 일궈냈다.

이번 대회에서도 임성재는 3라운드까지 6언더파 210타로 공동 4위에서 5타차를 극복하며 정상에 올라섰다.

임성재는 지난해에도 이 대회에 출전했지만 개막 하루 전날 코로나19에 감염돼 2주간의 격리만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현정형과 최승빈은 3오버파 공동 39위, 고근택은 5오버파 공동 49위를 기록했다. 국가대표 김현욱 12오버파 63위를, 하중훈과 한재민, 김승현 등은 컷탈락했다.

KLPGA 통산 2승의 임진희는 마지막 홀 극적인 버디로 통산 3승 고지에 올라섰다. 1, 2라운드 공동 선두, 3라운드 우승을 기록하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도 달성했다.

임진희는 이날 경기도 용인의 수원 컨트리클럽 뉴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3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치며 최종합계 15언더



임성재

파 201타로 박지영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 1억4400만원을 받은 임진희는 상금랭킹 6위(2억815만원)로 올라섰다.

임진희는 18번홀(파4)에서 극적인 버디로 연장승부를 지워버렸다. 임진희는 이날 14언더파로 먼저 경기를 끝낸 박지영과 동타였지만 18번홀에서 두 번째 샷을 홀 왼쪽 2.7m 지점에 붙인 뒤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임진희는 이날 우승으로 2021년 6월 BC카드 한경 레이디스 오픈에



임진희

서 프로 첫 승을 따낸 뒤 지난해 7월 맥콜 모나파크 오픈에서 2승에 이어 10개월 만에 시즌 첫 승이자 통산 3승을 달성했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우승하는 영광도 안았다.

1라운드에서 임진희와 공동선두에 올랐던 고지원(19)은 2라운드에서 공동 8위로 주저앉은 뒤 최종라운드에서 4오버파로 무너지며 현재 린과 공동 33위에 머물렀다.

함께 출전했던 고지우와 양효리는 부진 탈출에 성공하지 못하며 컷탈락했다. 조상윤기자



12일 제주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체육발전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대한체육회-제주체육회 상반기 순회간담회

지방체육 발전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민선2기 지방체육회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일 제주도 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를 갖고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송승천 제주도체육회장 및 부회장장과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 김태문 서귀포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을 비롯 정부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 평창동계훈련·교육센터 준공 등의 '체육계 중점과제 및 대한체육회 주요 현안'과 지방체육회장 선거 후속조치,

지방체육발전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대한체육회-제주체육회 상반기 순회간담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민선 1기에 이어 민선 2기 지방체육회장 체제에서도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이와 함께 지방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도 및 제주시와 서귀포시체육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제주도체육회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체육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시도체육회 정률 배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요청과 지방체육진흥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서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가점 부여 등 특별한 배려 등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했다.

송승천 제주도체육회장은 "체육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불어 제주체육 발전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세계 생활체육인 한마당 축제 펼쳐져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9일 열린 돌입 71개국 1만4000여명 참가 12~20일 전북 일원서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9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12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등 14개 시군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국내 9500여 명과 일본과 중국, 몽골, 호주, 미국, 우간다 등 해외 71개국 4500여 명의 생활체육인 총 1만4000여 명이 축구, 탁구, 배드민턴, 골프, 육상, 수

영 등 25개 종목에 참가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체육단체 동호인, 전직 선수, 은퇴 선수 등 만 30세 이상 생활체육인이라면 누구나 대회가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선수들은 어느 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 국가대항전인 엘리트 대회와 차이가 있다.

마스터스대회는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이 실력을 겨루고 경연을 펼치는 만큼 '생활체육인의 올림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국제마스터스

대회협회는 1985년에 발족한 이후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국제종합경기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최초의 월드 마스터스대회는 1985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으며,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20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처음 열린 이후 전북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고 있다.



대회협회는 1985년에 발족한 이후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국제종합경기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최초의 월드 마스터스대회는 1985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으며,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20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처음 열린 이후 전북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대회 개회식은 '새로운 변화, 희망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대회 홍보대사 진성, 나태주 등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선수단 입장, 축사, 개회 선언, 대회기 게양, 성화 점화,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상윤기자 sycho@halla.com

제주고, 서울고에 완패 1회전 탈락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 제주고가 제77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1회전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제주고는 14일 서울특별시체육회관에서 열린 대회 1회전에서 서울고에 1-11로 완패하며 1회전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황금사자기 8강까지 진출했던 경협을 되살리려던 제주고는 이날 1

회 수비에서 대거 8점을 내주며 힘든 경기를 해야 했다.

선발 안경준은 1이닝 동안 안타 7개와 사사구 3개를 허용하며 8실점해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 이어 나은이 4이닝 동안 피안타 2개 1실점으로 선방했으나 최준민이 2점을 추가해 내주며 대회를 마쳐야 했다.

공격에선 최창희가 2루타 포함 3타수 2안타 1타점으로 활약했지만 상대 투수 장준영과 어운성을 공략하지 못해 완패했다. 조상윤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뉴스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TV쇼 진품명품(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해 볼만한 아침 M&W 1부 8:05 해 볼만한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굿모닝 코리아(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어쩌다 마주친, 그대(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하늘의 인연(재) 8:30 TV 전국시대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보 좋아좋아 11:15 헬로키즈 공학교실 11:30 와썹 프리매지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로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8:00 땀과 눈물 유치민 9:05 고교야구 우리동네공룡 10:10 한국의 돌다리 13:00 EBS 평생학교 16:10 특목 문해력 박사 16:40 땀과 눈물 유치민 17:25 미니특강대 브라이언즈 17:55 한글용사 아이야 19:20 고향한국
12:00 KBS 뉴스 12 13: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보물섬(재) 15:00 콘서트 인테나(재) 15:50 고품질 이수다 16:00 사사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15 어쩌다 마주친, 그대(재) 13:30 트레킹노드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린디의 신기한 여행(재) 15:30 TV 유치민 16: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6:50 알찬의 탄생(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5 이 맛에 산다(재) 13:25 헬로키즈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 16:55 5 MBC 뉴스 17: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50 동상이몽2 13:10 KCTV 다중스페셜 15:20 아간대장 17:40 배워볼만 관공령어 18:30 방송콘텐츠경연대회 수상작 20:50 on 피플 in 제주 21:00 KCTV 뉴스7	7:00 김달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김서훈입니다 12:00 CBS뉴스종합뉴스 14:05 송정미의 촉촉속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민본부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우기 20:30 굿모닝 코리아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더 라이브 23:30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비밀의 여자 20:30 개는 훌륭하다 21:50 어쩌다 마주친 그대 23:05 걸어서 환장 속으로(재)	18:05 인생여행 세계의 이색호텔 스페셜 19:05 하늘의 인연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안싸우면 다행이야 22: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00 꽃산비 옆에서 23:10 동상이몽2 나는 내 운명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투디오 1055 14:00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0 달리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양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5일
	36년 해와 약 협력을 충실히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노력하라. 40년 아랫사람과 의견 조율이 곧 나의 명예와 직결된다. 60년 살 알지 못하면 잠깐하는 것은 삼가라. 망신수와 구설이 따른다. 72년 일이 풀리지 않아도 중심이 흔들리면 좌불안석하게 된다. 84년 마음이 안정되고 의욕이 증가한다.
	37년 자식의 문제로 마음이 쓰이나 스스로 해결되지 크게 우려하지 마라. 49년 관중 승인이나 인허가건이 해결되거나 계약할 일이 발생. 61년 활동력이 늘어나고 자식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있다. 73년 친구의 선약이 깨지거나 관계가 서박해진다. 85년 소개 또는 중매가 들어오나 반갑지 않다. 구설수 따른다.
	38년 사업에는 수익이 있고 몸이 바빠진다. 50년 부하 직원과 공유하고 해결이 안되는 것은 말기만 해결된다. 62년 어려움이 친구나 동업자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74년 재정적 지출로 갈등한다. 다툼은 화를 자초하며 내게 불리하다. 86년 유혹 남비하는데 자질이 생기고 외모에 신경 쓸 일이 생긴다.
	39년 가정사 문제로 형제 간에 논쟁이 생기니 나서지 말고 중립을 지켜라. 51년 문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계약은 유리. 63년 친구 또는 대인관계의 폭이 넓으면 좋다. 75년 교육-예능분야 운이 원만해지고 뜻하는 일이 해결된다. 87년 새로운 교제나 이성간 다툼이 오니 오늘보다 내일 만나라.
	40년 의욕이 강하고 갈 곳이 많다. 활동 원만. 52년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저축 또는 미래설계도 필요하다. 64년 시험 자격 준비자에게는 진전이 있고 희망이 보인다. 76년 자녀의 문제가 가정에서 불화가 조성되니 내일에 전념하라. 88년 상사나 지인의 추천 도움에 있거나 급진운이 좋아진다.
	41년 아랫사람 또는 자녀로 인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득도 따른다. 53년 급속류, 주유업은 분주하며 이익이 있다. 65년 직장이나 지인연인 업무가 해결되고 일의 능률이 있다. 77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주변인을 너무 신뢰하지 마라. 89년 사교력이 증가하고 이해득실을 생각한다.
	42년 의기투합하고 협력할 일이 생기면 이익이 있다. 공동투자 창업도 있다. 54년 서서히 회복되니 마음을 즐겁게 비워라. 66년 참고 기다리면 일에 기쁜 소식이 있다. 78년 친구 또는 동료와의 관계가 좋으나 자질이 흔들리고 운동은 궁하다. 90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 답답함이 가중된다.
	43년 이웃이나 친구를 만나 외출을 하거나 모임에 참석한다. 55년 문서관련 재물이 있으니 잘살피서 활동을 하라. 67년 열정이나 의욕이 강한 날. 활동성은 업은 이익이 증가된다. 79년 취업이나 직장문제에 화소식이 있다. 미혼자 이성교제 길. 91년 기록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경합한다.
	44년 구설수로 모임이나 사석에서 한 말이 와전되니 언행에 신중. 56년 계약 매매 등에 관한 일이 생기고 수익이 생긴다. 68년 경쟁자 또는 상대자로 인해 피곤. 전문직은 일이 많지 않다. 80년 부부간에 불화 갈등이 있고 이성간 교제가 진행될 수도 있다. 92년 파음을 삼가고 운전 또는 바깥 조심하라.
	45년 자기위신을 명쾌하고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용기. 57년 매매나 문서 계약건이 성사가 되나 자금력에서 어려움이 수 있다. 69년 동료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이성교제 소식이 찾아온다. 81년 지인의 도움이나 추천으로 취직이나 직업이 생긴다. 93년 의욕이 증가하고 활력이 넘치니 마음껏 활동하라.
	46년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결정하면 이익이 된다. 58년 신규창업에 좋고 기존 사업자는 매출이 증가된다. 70년 전문직에서는 인정을 받으려나 재물은 손실이 따른다. 82년 즐거움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 허전함이 들리니 기대를 크게 하지 마라. 94년 불화나 논쟁이 올 수 있으니 먼저 사비는 금물.
	47년 아랫사람과 관련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 59년 과욕은 금물. 무리한 투자는 하지마라. 손실이 있다. 71년 내기 투기 도박에 승부를 걸면 손해가 심하니 자제하는게 유리. 83년 계획한 일에 차질이 오니 다음으로 미뤄라. 95년 모임이나 만남이 있다. 외출시 음주 자제. 늦은 귀가는 금지.